

군인가족 자녀 입학수기

김홍미 (수필가)

군인가족으로 살다보면 자녀들에 대한 대학진로를 어떻게 해야만 하나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군인가족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것이 바로 자녀들의 대학 입학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자녀들의 입학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담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를 자주하고 자녀들도 전학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기만 바라는 부모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정말 공부가 좋아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어느 분야를 좋아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은 한 가지 재주는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학업 일정표에 따라 공부는 하지만 금세 지루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공부에만 승부를 걸 수 없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모르면 교육도 어렵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것을 할 때 집중해서 하는지 부모는 알 수 있습니다. 미술, 악기, 글쓰기, 기계, 무용, 연기, 노래 등 학생들이 목표를 세워 노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요즘엔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부터 학부형들은 너무 단편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아이의 개성을 파악하지는 않고 무조건 공부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아이는 공부에 소질도 흥미도 없는데도 굳이 고등학교 진학은 꼭 인문계고교에 가야된다는 부모들이 상당수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분위기의 학생들은 거의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도 다양합니다. 예술계, 공업계, 국악, 조리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진학을 해야만 아이도 열심히 학교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하고 쉬운 말이지만, 그러나 아이의 재능을 찾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몇 십 년을 살면서도 자신의 재능과 꿈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향하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하고 똑바른 표지판을 세워주는 것은 부모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학교 진학에 관심이 많으시죠?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야지. 공부를 해야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정말 잘할수 있는 것에
도전하라.

란다.”라는 말 한번쯤은 자녀들에게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21세기 개성화 시대입니다. 그에 맞춰서 공부만이 아닌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자기추천, 리더십, 봉사활동, 적성검사, 논술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도 공부가 최고라는 생각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한 학생은 글쓰기에 재미를 느끼고 여러 백일장을 다니며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학업이 기본적인 지식 소양으로만 생각하였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종류의 대회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는 정보력에도 통달하셔야겠죠. 그런 대회들을 먼저 파악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제 아이도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보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도 진실이 보여지는 창입니다. 그 창에는 ‘나는 자녀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투명한지 비춰지며, 얼마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보여질 수 있기에 저는 자녀 스스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어느 학부형의 고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할 일은 그것을 믿고 지켜봐 주는 일 뿐입니다.

또 포토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가 자라면서 활동했던 것들을 사진 자료로 만들어, 어떤 분야에서 우리 아이가 특수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일깨워주고, 방과 후나 방학 중 캠프에서 활동 했던 자료들을 모아 포토폴리오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듯이 입학사정관제도 관련 입시 설명회는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각종 사교육시장에는 이에 맞추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사교육과 각종 컨설턴트의 문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하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그 준비를 시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단순히 스펙(Spec)을 쌓기 위해 무엇을 하기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도록 권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아이가 잘하고 있는 분야를 찾아 자신감을 기르도록 부모가 인정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대학을 가는 길은 다양하면서도 쉬운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녀의 개성도 살리면서 자녀 스스로 만족해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형님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